

[서식 예] 대여금청구의 소(지급담보의 약속어음부도, 주위적청구원인 대여금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들의 관계
원고는 ○○전자상가인 ○○상가에서 각종의 전자부품을 취급하는 ○○전자라

는 상호로 도매업을 하고 있으며, 피고는 같은 전자상가 내에서 컴퓨터조립업체인 ◎◎컴퓨터라는 소매업체를 각 운영하면서 3년 전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원고는 피고가 필요로 하는 각 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고 매월 이를 결제 받는 등 같은 업계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.

2. 금전의 대여경위

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사업운용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해와 2000. 0. 0.에 이자는 정하지 않고 변제기를 2000. 00. 00.로 정하여 금 000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.

1. 액 면 : 금 000원
2. 만 기 : 2000. 00. 00.
3. 지급지 : 00시
4. 지급장소: 00중앙회 00지점
5. 발행일 : 2000. 0. 0.
6. 발행지 : 00시
7. 발행인 : ◇◇◇

3. 대여금채무의 상환불이행

피고는 위 돈을 빌려간 뒤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2000. 0.경부터는 영업장을 폐쇄한 채 영업을 중단하였고, 2000. 0.경에는 아예 행방을 감춘 뒤 지금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인 2000. 00. 00.에 지급장소인 00중앙회 00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였습니다.

4. 결 론

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 청구로서 대여금채무의 채무자로서 대여금 000원 및 이에 대한 2000. 0. 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받은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하며, 만약 위 대여금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할 책

임이 있으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-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. 갑 제1호증의 1, 2 | 약속어음앞면 및 뒷면 |
| 1. 갑 제2호증 | 사업자등록증 |

첨 부 서 류

- | | |
|-----------|------|
| 1. 위 입증방법 | 각 1통 |
| 1. 소장부분 | 1통 |
| 1. 송달료납부서 | 1통 |

20○○. ○. ○.

위 원고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 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 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		
비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 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		
불 복 절 차 및 기 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		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인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(消費貸借)를 한 때에는 대주(貸主)는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(상법 제55조 제1항),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율은 연 6%임(상법 제54조).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함(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9다10189 판결). ·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 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(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9다16378 판결), 이미 존재하는 금전 대차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원인채권의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원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1976. 11. 23. 선고 76다1391 판결). 		

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

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